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

Summary in Korean

OECD-FAO 2009 년 농업전망 보고서

한국어 개요 (번역본)

대요(大要)

• OECD 와 월드뱅크의 2008 년 12 월 이후 중기 경제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번 중기 전망의 배경이 되는 거시경제 환경은 지속적인 재정 및 경제 위기때문에 여전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환경의 동요를 감안할 때 이 기준선 전망은 신중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악화일로로 달리는 경제위기가 기준선 전망에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영향에 대해 이 보고서에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물론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용경색과 경제위축이 농업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문제는 본 전망의 범위를 벗어난다.

• 작년에 예상 밖으로 농산물 공급 반응이, 특히 선진국에서 더 원활해지고, 유가가 훨씬 더 많이 내린 덕분에 2007-08 년의 고가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내렸다. 전반적인 경제가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향후 2-3 년은 농산물 가격이 더 위축될 것이지만 다시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오름세를 탈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향후 10 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평균가는 여전히 2007-08 년 정점 이전의 10 년간 물가 수준과 같거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곡물가는 1997-2006 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10-20% 더 높을것으로 전망되는가

하면 식용유의 실제 가격은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육류의 실질 가격은 1997-2006년 평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망 기간이 시작되는 지음에 소비자 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값싼 고기로 대처하려는 추세가 일면서 쇠고기보다는 가금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평균 유제품의 실질 가격은 1997-2006년에 비해 2009-18년에 약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와 식용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버터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평균 12% 오를 전망이다.

- 전 세계를 휩쓰는 재정 위기와 경제침체로 모든 경제 부문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농업은 상대적으로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수입이 비교적 높았고 식품 수요가 비교적 소득과 탄력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 보고서는 금년 초에 준비되었는데 그 때에 비추어 보면 현재 세계의 경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는 농업이 경기후퇴와 관련해서 지니는 탄력성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2-3년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저소득 때문에 생기는 농산물 가격, 생산 및 소비의 저하가 보통 정도일 것으로 이 분석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 여기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보면 이 전망의 기준선에서보다 더 낮은 GDP와 소득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훨씬 더 심층적이고 보다 더 길어지는 경기후퇴까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과 같이 가격이 더 높은 목축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입게 될 것이다. 쇠고기 값은 기준선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9% 정도 더 낮아질 것이다. GDP가 내려간다는 각본에서 본 곡물과 생연료 가격 저하는 목축제품 가격의 절반 정도로 그친다. 곡물 가운데 옥수수 가격이 GDP가 더 낮은 곳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옥수수가 생연료 재료로보다는 일차적으로 사료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뜻한다.

- 이 특별 초점에는 금융시장의 동요와 경제위기가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급자와 소매업자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 부문에서는 불경기를 현재까지 꽤 잘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아래쪽 부문에서는 신용 접속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사업 용자 제약이 회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 시장의 경색이 지속될 경우 확고한 생존력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신용에 대한 접속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OECD 국가 내외의 모든 소규모 농업 및 식품 회사들의 경우가 그렇다.

- 여기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 또한 원유가 대 농산물가의 민감도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와 농산물가는 산업화된 영농, 빈번한 가공처리 및 장거리 운송, 그리고 (특히 옥수수, 오일시드 및 설탕 공급재료와 같은) 생연료 업계의 부상과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원유가는 아주 변동이 심하며 일부 전망에서는 이 보고서에 사용된 것보다 훨씬 높게 잡힌다.

- 기준선에서 예상하는 중기간의 원유가는 1997-2006년 실질

평균가보다 60% 정도 올라, 전망 기간 말에 이르러서는 배럴 당 미화 70 불 정도로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원유가가 작년 전망 대로 배럴당 미화 90 불에서 100 불 이상으로 오를 경우 농산물 가격은 훨씬 더 올라 농작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는 주로 농작물 생산의 감소와 투입 비용의 증가가 그 요인이기도 하지만 생연료에 대한 공급재료 수요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 생연료 시장은 갈수록 정부 지정 용도에 의존하지만 미래 원유가 동향, 정책개입의 변화 및 제 2 세대 기술 개발과 같은 예측불허의 요인 때문에 전망은 불투명하다. 물론 생연료 지원 정책이 에타놀 및 바이오디젤 가격과 생산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본 전망 보고서 대부분에서 가정하고 들어 가는 미화 60-70 달러 선에 원유가가 머무는 한 생연료는 비교적 저렴한 화석 연료와 경쟁하기가 버거울 것이다. 지정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연료 생산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밀, 옥수수, 오일시드 및 설탕과 같은 공급재료의 가격을 계속 올리는 영향을 낳게 될 것이다.

- 일단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과 소비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 나는 곳은 개도국일 것이다. 이점은 목축제품과 관련해서 볼 때 특히 명백한데, 그 일차 동인은 소득과 인구 증가이고, 동물성 고단백질 식단과 지속적인 도시화 현상이 그 요인이 될 것이다.

-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는 OECD 지역의 증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남남 무역 확대가 본 전망 보고서의 한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OECD 국가는 계속해서 밀, 잡곡류 및 모든 유제품의 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 작년도 전망 의 주요 초점은 농산물 가격 인상과 관련된 식품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었다. 그 후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식품 가격은 여전히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하락했다. 2009 년 2 월까지 이르는 3-6 개월간에 걸쳐 많은 국가에서 식품 가격 지수는 오름세를 타고 있었다.

- 장기적인 인구 및 소득 전망을 참조한 최근 FAO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의 식량 생산은 2005-07 년 평균 수준에 비해 2030 년에 가서는 40%, 2050 년에 가서는 70% 증가할 필요가 있다.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추가로 상당히 많다. 현재 농경지 14 억 헥타에 추가 될 수 있는 토지는 15 억 6 천만 헥타 정도이다. 추가될 수 있는 토지의 절반 이상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다. 이 지역은 비에 의존하는 농작물 생산 면에서 가장 적합한 등급의 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작지 확장 속도가 느린 상태라서 불모지를 생산가능한 땅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에 비해 수확은 평균 이하일 수 있는가 하면 어쩌면 사회환경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다.

- 농작물과 목축 생산성은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최소한 가장 생산적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오르게 되어 있으며 향후 10-

20 년에 걸쳐서 추가로 증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공공부문 농업연구비 지출은 점점 줄어 드는 실정이다. 중앙 및 동유럽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면서 투입, 인프라 개발 및 확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좋으면 생산성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 농업은 OECD 국가의 물 사용량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물 사용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사용량 가운데 99%가 관개수이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 개도국의 경우 상당한 지역이 관개수의 혜택을 입고 있다. FAO에서는 관개 지역의 확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데 앞으로 농업 생산은 갈수록 가용한 물에 크게 제약을 받을 것이다.

- 기후변화 역시 미래 생산 가능성에 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다발하는 심한 물 난리와 마찬가지로 물에 따른 위험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뿐 아니라 생산 전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농산물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10 억 인구의 굶주림과 식량 불안정이라는 보다 더 불안한 이야기가 도사리고 있다. 식량 보안은 단기적인 면에서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빈곤 해소와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농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 더 효율적인 개발, 무역 및 국내 정책 개혁, 이 모두가 해법에 일조하고 있다.

© OECD 2009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